

한의학 전공 대학생과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生の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 비교연구

원 향 레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tudy of the College Students'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Attitude by comparing thos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major students and those of Food and Nutrition major students

Won, Hyang Ry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al knowledge and food habit of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218 students) and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286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The intake of vegetable and dairy products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p<0.01$), and the intake of instant food is low for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p<0.01$). 2)In the value of diet, the ratio which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et and the nutrients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 ($p<0.01$), and the ratio which acknowledges the diet as the way to remove hunger or to enjoy eating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p<0.01$). The ratio of the students who acknowledge taste, nutrition and preference as the important factors in selecting foods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p<0.01$). The ratio of regularity in each meal, consuming time, and the food quantity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p<0.01$). 3)The total score of 20 inquiring items about nutritional knowledge is high for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p<0.01$), and especially the mark is high in such items inqui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 fat and nutrition($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 and obesity($p<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olesterol and food($p<0.01$), the recommended energy quantity($p<0.05$), and the vitamin B group ($p<0.01$).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hard to determine that there is inevitabl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et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The students majoring food and nutrition know better than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health and nutrients however they can not practice what they know when selecting food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 show lower marks in food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than those of the students majoring food

and nutrition; however, they show higher marks in practicing regular diet.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ubjects related nutrition in the curriculum not only for the students majoring food & nutrition to practice their nutritional knowledge in their actual life but also for the students majoring Korean oriental medicine to obtain correct nutri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Key words: nutritional knowledge, eating habit, eating attitude, college students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의 도시화, 상업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식생활이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어 식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Lee 등, 1996) 과거에 비해 곡류섭취의 감소, 동물성 식품 및 지방 섭취의 증가, 외식의 급증,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 등 식생활 패턴이 뚜렷이 서구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5).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와 사망원인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7). 비만 이환율의 증가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된 사망 원인도 전염병이 아닌 만성 퇴행성 질환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영양 개선등의 생활습관 변화유도와 같은 예방중심으로 국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Shin & Park, 1995).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품 선택과 영양에 대한 지식, 올바른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 등, 1995; Kim 등, 1999; Kim & Lee, 1996; Lee, 1999; Yoon 등, 1998, 2002; Yoon, 2000).

그러므로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영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White 등, 1987). 특히 진료인으로부터 얻는 영양 정보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Buttriss, 1997) 바른 영양 정보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도

진료인으로부터 의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영양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ttriss, 1997; Cooper 등, 1981; Winick, 1988). 특히 근래에 와서 진료인들은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외래환자의 만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양의사와 간호사의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있으나 (Choue & Hong, 1995; Chang & Kwon, 1996; Yoon 등, 2003) 한의학 전공대상자의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학 전공 대학생의 식습관, 식생활태도 및 영양 지식을 조사하여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과 비교하여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영양학 관련 교과목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원주와 제천에 소재한 2개 한의과대학 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88명과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록하게 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자를 제외한 464부로 유효회수율은 95.3%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Table 1. Scores of food behaviors

Classification	Major type		Total (464)	χ ² value
	Food & Nutr. (196) ¹⁾	Korean Oriental Med. (268)		
Animal protein intake	1.8±0.1 ²⁾	1.8±0.9	1.8±0.9	2.0108
Vegetable and fruit intake	2.6±1.1	2.2±1.2	2.3±1.2	19.3426**
Dairy food intake	2.2±0.9	1.7±1.1	1.9±1.0	20.0108**
Small fish with bone	0.9±0.8	0.8±0.8	0.9±0.8	4.4092
Vegetable protein intake	1.4±1.0	1.6±0.8	1.5±0.8	3.7152
Seaweed intake	1.2±0.9	1.3±0.9	1.3±0.9	2.0102
Vegetable oil intake	1.4±0.9	1.3±0.8	1.4±0.8	2.9495
Sodium intake	2.0±1.0	1.8±1.0	1.9±0.9	4.4092
Instant food intake	2.4±0.9	2.9±0.9	2.6±0.8	20.3189**
Balanced meal	2.1±1.1	2.0±1.1	2.0±1.0	4.1790
Total score	18.0±4.3	17.4±4.2	17.8±4.3	14.8234

¹⁾ Major type(No.of subjects) ²⁾ Mean±S.D *P<0.05 **P<0.0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나이, 키, 몸무게, 주거특성, 통학수단, 수면시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식습관 및 식행동 조사

(1) 식습관 조사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을 중심으로 일상 식사에서의 일주일 간의 식품섭취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거의 매끼에서, 매일 1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거의 먹지 않는다는 5단계로 나누고 0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단 가공식품과 소금섭취의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4점부터 0점으로 역으로 환산하였다.

(2) 식행동 조사

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사에 대한 가치관, 식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식사의 규칙성, 식사시간, 결식여부, 식사의 양, 편식여부와 자신이 먹고 있는 식사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3) 영양지식 조사

열량 및 기본 영양소의 역할과 부족증, 함유식품 등에 관한 지식을 비롯하여 콜레스테롤, 섬유소 등 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분, 가공식품, 기초식품, 무공해 식품 등에 관한 지식을 서술형의 문항으로 제시하고 맞다, 틀리다, 모른다 중 답하게 하였고, 총점은 정답의 개수로 나타내었다.

3. 조사자료의 통계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0.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단순빈도와 ANOVA test, x²-test 등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습관조사

식습관 10개 문항에 대한 각 항목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보면 Table 1과 같다.

항목별 식습관 점수를 보면 채소와 과일 섭취(p<0.01), 유제품 섭취(p<0.01), 인스턴트 식품섭취(p<0.01)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와 과일 섭취, 유제품 섭취는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Lowell(1978, 1985), Ross(1984), Song(1986)등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관련 강의를 듣고 배운 학생의 식습관 점수가 배우지 않은 학생의 점수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p<0.01).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영양지식점수와 식습관 점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보고(Yoon 등,2003: Song & Kim,1999)와 유사하였으나 영양지식과 식습관 또는 식생활태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Jang 등(1995), Yoon과 Choi(2002)의 보고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of missing meal per week

Classification	Major type		Total (464)	χ^2 value
	Food & Nutr. (196)	Korean oriental Med. (268)		
Breakfast				
None	42(21.2)	56(22.0)	98(21.1)	1.6294
3-4 times	112(57.2)	145(53.9)	257(55.4)	
1-2 times	42(21.6)	67(25.1)	109(23.5)	
Lunch				
None	95(48.6)	108(40.3)	203(43.8)	21.4534*
3-4 times	16(8.2)	41(15.2)	57(12.3)	
1-2 times	85(43.2)	119(44.5)	204(43.9)	
Dinner				
None	80(40.9)	108(40.3)	188(40.5)	6.9169
3-4 times	33(16.3)	70(26.0)	103(22.2)	
1-2 times	84(42.8)	90(33.7)	173(37.3)	

*P<0.05

Table 2. Dietary behaviors in the students majoring food and nutrition and thos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Classification	Major type		Total (464)	χ^2 value
	Food & Nutr. (196)	Korean Oriental Med (268)		
Purpose of meal				
Intake of nutrient	145(74.1) ¹⁾	152(56.9)	297(64.0)	36.2940**
Solution for hunger	28(14.4)	65(24.3)	93(20.0)	
Pleasurable taste	18(9.1)	40(14.6)	58(12.6)	
Habitual eating	5(2.4)	11(4.2)	16(3.4)	
Consideration factors for food selection				
Quantity	8(43)	28(10.5)	36(7.8)	29.4651**
Taste	113(57.1)	136(50.9)	249(53.7)	
Nutrition	43(22.1)	54(20.1)	97(20.9)	
Digestion	2(1.1)	14(5.2)	16(3.4)	
Preference	30(15.4)	36(13.3)	66(14.2)	
Regularity of meal				
Regular	13(6.8)	74(27.6)	87(18.8)	40.0051**
Neither reg. nor irreg.	91(46.2)	144(53.8)	235(50.6)	
Irregular	92(47.0)	50(18.6)	142(30.6)	
Meal time				
Regular	62(31.6)	150(55.9)	212(45.7)	39.9544**
Neither reg. nor irreg.	90(46.2)	90(33.8)	180(38.8)	
Irregular	44(22.2)	28(10.3)	72(15.5)	
Quantity of meal				
Regular	20(10.2)	96(35.9)	116(25.0)	25.9983**
Neither reg. nor irreg.	101(51.6)	140(52.4)	241(51.9)	
Irregular	75(38.2)	32(11.7)	107(23.1)	
Unbalanced meal				
Yes	71(36.2)	88(32.8)	159(34.3)	0.76362
No	125(63.8)	180(67.2)	305(65.7)	

¹⁾ Frequency (%) **P<0.01

2. 식행동 조사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사에 대한 가치를 묻는 항목에서 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식사하는 목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p<0.01).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은 식품영양 전공 대상자들보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즐거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식사한다는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품영양학 전공자들이 건강과 식사가 영양소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도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이 영양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식사에 대한 가치관에서 식사와 영양소와의 관련성에 응답한 비율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반면 맛과 기호도를 식품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식사의 목적이 이론적으로는 기호도나 식습관보다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으나 실제 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소보다 맛과 기호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사행동의 규칙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이 더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사를 거르는 빈도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식사를 거르는 경향은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p<0.01). 자신의 식사와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5). Jang 등 (1997)은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건강행위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군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한 군에서 결식비율이 높은 결과는 일치하고 있었다(Table 4).

3. 영양 지식

영양지식을 묻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자의 비율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20개의 항목 중 13개 항목의 정답비율이 90%였고 2개 항목이 80% 이상, 2개 항목이 70% 이상, 2개 항목이 60% 이상 1개 항목이 50% 이상의 정답율을 보여주었다. 전공간의 유의차를 보인 항목은 20항목 중 5 항목이었다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과 한의학 전공대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의 영양지식 정답률은 한의학 전공 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동물성 기름과 영양과의 관계, 물과 비만과의 관계, 콜레스테롤과 식품과의 관계, 에너지 권장량, 비타민 B군을 묻는 항목에서 정답율이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문항에 대한 총 정답수를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이 17.8±3.1, 한의학 전공대학생이 16.8±1.8로 유의적인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 등 (1997a,

Table 4. self-recognized meal state and health state

Classification	Major type		Total (464)	χ ² value
	Nutrition (196)	Korean oriental Med. (268)		
Meal state				
Poor	34(17.2)	55(20.5)	89(19.2)	3.1646
Moderate	142(72.2)	183(68.4)	325(70.0)	
Good	20(10.6)	30(11.1)	50(10.8)	
Health state				
Unhealthy	17(8.7)	47(17.4)	64(13.8)	7.1991*
Moderately healthy	126(64.3)	166(61.8)	292(62.9)	
Healthy	53(27.0)	55(20.8)	108(23.3)	

*P<0.05

Table 5.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on question items about nutritional knowledge

Question items	Major type		Total (464)	χ^2 - value
	Food & Nutr. (196)	Korean Oriental Med. (268)		
Calcium intake can be obtained from milk and small fish	196(100.0)	264(98.6)	460(99.1)	2.91932
Tofu is good protein food	196(100.0)	268(100.0)	464(100.0)	0.00193
Cookedrice,bread and noodle are carbohydrate foods	193(98.6)	264(98.6)	457(98.5)	0.00193
Osteopathy or osteoporosis is caused by deficiency of calcium	187(94.7)	257(95.8)	444(95.7)	0.00681
Instant food are not harmful to health, even if we have much	192(98.1)	251(93.7)	443(95.5)	3.62673
There is no need of taking dietary fiber, because it is not nutritious	192(98.1)	206(97.2)	452(97.4)	0.89444
Carbohydrate and fat are nutrients for calorie and power	178(90.9)	251(93.7)	429(92.5)	0.03715
Minerals and vitamins are nutrients for metabolism regulation	184(93.8)	260(97.2)	444(95.7)	0.62673
Iron deficiency is leading to anemia	196(100.0)	264(98.6)	460(99.1)	2.88531
Protein is nutrient for the formation body tissue	188(95.7)	260(97.2)	448(96.6)	0.89444
Animal fat is better for health than vegetable oil	189(96.2)	242(90.4)	431(92.9)	16.3266**
Carbonated beverage, such as coke, have no calorie	184(93.8)	252(94.1)	436(94.0)	3.93263
Everybody needs same nutrients equally	190(96.7)	260(97.2)	450(97.0)	0.92642
Drinking water also cause obesity	122(62.2)	151(56.4)	273(58.8)	13.27122*
Egg has a high cholesterol content	164(83.7)	228(85.2)	392(84.5)	0.92464
Cholesterol is indispensable	152(77.7)	191(71.2)	343(73.9)	15.14557*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of energy for male college student is 2500Kcal	156(79.5)	189(70.5)	345(74.4)	15.2712*
Fresh food are more nutritious	174(88.8)	234(87.2)	408(87.9)	0.62871
Carbohydrate and protein are equal in calorie	122(62.1)	166(61.8)	288(62.1)	2.40903
As labor amount increase, the needed amount of vitamin B group increases	138(70.3)	170(63.4)	308(66.4)	15.16557*
Total	17.8±3.1	16.8±1.8		16.4923**

¹⁾Percentage of correct answer on each item *P<0.05 **P<0.01

1997b)이 타이완의 의과대학 본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일차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식생활에의 실천도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본과에 재학 중인 의대생의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반영양 지식 점수는 5.99±1.51, 임상영양지식은 5.15 ±1.77이었고 정답율은 일반 영양 지식의 경우 60%, 임상영양지식은 54%의 정답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영양과 관련된 식행동의 실천율은 30~61였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 역시 영양 지식의 정답율은 평균 52~60% 였으나 실천율은 그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영양지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 진료의사의 경우 전체 영양지식 점수는 59%의 정답율을 나타냈고 일반영양 지식점수가 일반영양 지식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 의사의 대부분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서술한 항목에는 동의하였고 부정적인 식생활 태도를 서술한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Buttriss(1997)는 영국의 일반의와 수련 간호원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환자의 53%가 의사가 제공하는 영양과 식품에 관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의와 수련간호사는 영양 지식 중 식품을 통한 당분

섭취, NSP(nonstarch polysaccharide), trans fatty acid 에 관한 내용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식사와 심장병과의 관련성은 확실히 설명할 수 있었으나 식사 내용중 녹말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고 일반의나 수련간호사 모두 영양학에 관한 수련 과정에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일반의는 그들 환자가 질병이 나타났을 때 환자의 식생활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고 무관심, 보수 성향, 영양 지식의 부족이 식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벽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영양 지식 중 전달매체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항목은 칼슘, 지방, 철분을 지적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교과 과정중 진료팀의 영양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Krause 등, 1977; Kushner 등, 1990; Lopez 등 1988,1989; Podell 등, 1975; Weinsier 등 1989) 평가 및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임상영양학 과목을 포함시키는 타당성과(Boker 등 1990; Feldman, 1991; Heymsfield.1988; Swanson, 1991) 최신 영양 정보를 습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Weinsier 등,1989; Feldman,1988,1991; Cooper,1981). 아직까지 한의학 전공 대학생과 한의사에 대한 연구 보고가 아직 없는 실정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의과대학생, 양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는 하나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의학 분야도 예방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가 현저히 요청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직면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통해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과정 변화 중 영양학은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영양교육 담당자들은 한의과 대학의 교과과정에 임상 영양학을 강화 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고 전문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을 진료하여야 할 한의사들은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와 식사를 통한 환자치료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본다.

IV. 결론 및 요약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 196명과 한의학 전공

대상자 268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채소와 과일 유제품 섭취는 식품영양 전공 대상자들이 높았고($p<0.01$),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이 낮았다($p<0.01$).

2.식사에 대한 가치관에서 식사와 영양소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에게서 높았고 ($p<0.01$),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과 먹는 즐거움을 식사의 가치관으로 응답한 비율은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다($p<0.01$). 식품 선택 시의 고려 사항은 맛, 영양, 기호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에게서 높았다($p<0.01$). 매끼 식사, 식사 시 소요시간, 식사량에 대한 규칙성은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다($p<0.01$).

3. 20 항목의 영양 지식의 총점은 식품영양학 전공대상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p<0.01$), 항목별로는 동물성 지방과 영양과의 관련성 ($p<0.01$), 물과 비만과의 관련성 ($p<0.05$), 콜레스테롤과 식품과의 관련성($p<0.01$), 에너지 권장량 ($p<0.05$), 비타민 B군의 기능을 묻는 항목($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태도와 영양지식과의 관련성은 반드시 정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은 식사와 건강과 영양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의학 전공 대학생보다 잘 알고 있으나 막상 식품 선택 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은 식생활 태도와 영양지식은 식품 영양학 전공 대상자에 비해 그 점수가 떨어졌으나 규칙적인 식생활 실천면에서는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식품영양학 전공 대상자들은 알고 있는 영양지식을 구체적으로 실제 식생활에 실천할 필요성이 있고 한의학 전공 대상자들은 올바른 영양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영양학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Boker J.R., Weinsier R.L., Brooks C.M. and Olson A.K.(1990). Components of effective clinical nutrition training: a national survey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residency) program. *Am J. Clin Nutr.* 52, 568-569.
- Butriss J.L.(1997). Food and nutrition: attitudes, beliefs, and knowledge in the United Kingdom. *Am J Clin Nutr.* 65(6S), 1985S-1995S.
- Chang H.S. and Kwon C.S.(1995). A study on the nutrition knowledge, food habit, food preference and nutrients intakes of urban middle-aged women. *Korean J. Dietary Culture* 10(4), 227-233.
- Chang H.S. and Kwon C.S.(1996). Evaluation of necessities of clinical nutrition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J. Korean Soc Food Sci. Nutr.* 25(3), 415-422.
- Choue R.W. and Hong J.Y.(1995). Evaluation of development and necessity of therapeutic diet manual in medical practices. *Korean J Nutrition* 28(2), 162-169.
- Cooper-Stephenson C. and Theodogides A.(1981). Nutrition in cancer: physician's knowledge, opinions and educational needs. *J. Am. Diet. Assoc.* 78, 472-476.
- Feldman E.B.(1991). Educating physicians in nutrition-a 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m. J. Clin. Nutr.* 54, 618-624.
- Feldman E.B.(1988). *Essentials of clinical nutrition.* Philadelphia FA Davis
- Ha T.Y., Kim H.Y. and Kim Y.J.(1995).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hers. *J. Korean Soc. Food Nutr.* 24(1), 420-426.
- Heymsfield S.B.(1988). Postgraduate physician training in nutrition: The 1985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nutrition survey. *J. Nutr. Educ.* 20, S20-23.
- Hu S.P., Liu J.F., Shieh M.J.(1997). Nutri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senior medical students in Taiwan. *J. Am Clin Nutr.* 16(5), 435-438.
- Hu S.P., Wu M.Y. and Liu J.F.(1997). Nutri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primary care physicians in Taiwan. *J. Am Coll Nutr.* 16(5), 439-442.
- Jang Y.S., Song K.H., Kim E.H., Suh Y.S., Kim D.H. and Shin Y.J.(1997). Health behaviors and health perception and medical and non medical students, *J. Korean Acad. Farm. Med.* 18, 1469-1482.
- Kim K.N. and Lee K.S.(1996).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attitude and foo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1(1), 89-99.
- Kim J.H., Lee M.J., Yang I.S. and Moon S.J.,(199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Society Food Culture* 7(1), 1-8.
- Krause T.O. and Fox H.M.(1977). Nutri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physicians. *J. Am., Diet. Assoc.* 70, 607-611.
- Kushner R.F., Thorp F.K. Edwards J., Weinsier R.L. and Brooks C.M.(1990). Implementing nutrition into the medical curriculum; a user's guide. *Am. J. Clin. Nutr.* 52, 401-406.
- Lee K.A.(1999). A comparison of eating and general health practices to the degree of health consciousness in Pusan college students, *Korean J Food & Nutrition* 28(3) 732-746.
- Lee Y.M., Lee K.Y. and Jang H.K.(1996).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 in adult. *Korean Society Food Culture* 11(3), 317-327.
- Lopez A.S. and Anderson M.S. and Block K.(1989). Priorities for nutrition content in a medical school curriculum; a national consensus of medical educators. *Am. J. Clin. Nutr.* 50, 707-710.
- Lopez A.S., Read M.S. and Feldman E.B.(1988). 1987 ASCN Workshop on nutrition education for medical/dental students and residents-integration of nutrition and medical educa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Am. J. Clin. Nutr.* 47, 534-537.
- Lowell J.P.(1978). Survey of nutrition knowledge and interest of studeny. *Proc. Nutr. Soc.* 3A.
- Lowell J.P.(1985). A comparison of the food habits of students from four courses. *Proc. Nutr. Soc.* 73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1995).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report.
- National Statical Office(1997). Annual report of the cause of death staticis, Seoul
- Podell R.N., Gary L.R. and Keller K.(1975). A profile of clinical nutrition knowledge among physicians and medical students. *J. Med. Educ.* 50, 888-88-890.
- Ross J.K.(1984). Nutrition attitudes and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J. Am. Diet. Assoc.* 84, 687-688.
- Shin Y.J. and Park K.A.(1995). A study on eating habits of business in urban areas. *Korean Society Food Culture* 10(5), 435-442.
- Song B.C. and Kim M.K.(1999).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food habits and nutrient intakes of adult women living in Jungwon area.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Natural Science. *Konkuk university* 10(2), 247-256.
- Song Y.S.(1986). The effect of nutrition course on the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 Nutr.* 19(6), 420-426.
- Swanson A.G.(1991). Nutrition science in medical-student education 1990, ASDN nutrition educators' symposium an information exchange. *Am. J. Clin. Nutr.* 53, 587-592.

- Weinsier R. L., Boker J. R., Brooks C. M., Kushner R.F., Viek W. J., Mark D.A., Lopez A.S., Anderson M.S. and Block K.(1989). Priorities for nutrition content in a medical school curriculum: a national consensus of medical educators. *Am. J. Clin. Nutr.* 50, 707-711.
- White J.V. Young E. and Lassell A.(1987).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Nutrition essential component of medical education. *J. Am. Diet. Assoc.* 87, 642-648
- Winick M.(1988). The nutritionally illiterate physician. *J. Nutr. Educ.* 20, S12-13
- Yoon E.Y., Yeo I.S., Shin E.M.(1998). The effect of food habits on blood component profile and health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4(1), 20-29,
- Yoon H.S.(2000).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attitude of the school food service dietician working in Kyungnam area, *J Kor. Dietetic Asso.* 6(2), 179-188.
- Yoon H.S., Choi Y.Y. and Lee K.H.(2003). Evaluation of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nutrient intakes of nurse working in Kyungnam area. *The Korean J. Nutr.* 36(3), 306-318
- Yoon H.S. and Choi Y.S.(2002).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health consciousness and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attitud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Masan city. *Korea J. Nutrition* 35(3), 368-379.